

耽羅成立期 聚落의 形成과 變遷

金慶柱*

< 목 차 >

I. 머리말	2. 立地類型과 空間的 範圍
II. 研究背景 및 時期設定	IV. 聚落의 變遷과 特徵
1. 研究背景	1. 耽羅成立期의 聚落
2. 時期設定	2. 耽羅時代 前期의 聚落
III. 聚落의 立地 및 範圍	3. 試案提示
1. 立地條件	V. 맺음말

요 약

제주지역은 최근 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 취락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기구분을 제안하고 탐라성립기~탐라시대 전기의 각 단계별 취락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탐라성립기는 송국리형주거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취락이 성행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취락은 해안에서 반경 2km 이내의 해발 50m 이하인 해안단구 및 하천단구성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취락은 3단계에 걸쳐서 변화의 양상이 확인된다. 전기는 송국리형주거문화가 유입되는 단계로 이전 시기에 비해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기원전 3세기~2세기경에 해당한다. 중기는 송국리형주거문화의 성행기로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대에 해당한다. 후기는 송국리형주거문화가 변화·소멸하는 과정에 있는 단계로 기원후 2세기~3세기경에 해당한다.

탐라성립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취락의 규모가 확대되고 토기조합상에서 직립구연토기,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등이 중심토기로 제작·사용되고 계층구조의 불평등화를 상징하는 위신재가 증가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탐라시대 전기는 소규모취락이 급증하며 계층구조의 불평등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배계층의 무덤인 철기부장묘가 출현하는 시기로 제주전역이 광지리식토기로 단일화되는 단계이다.

[주제어] 탐라성립기, 탐라시대 전기, 상모리식토기, 삼양동식토기, 광지리식토기

* 제주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濟州考古學의 출발은 198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여 년의 결코 짧지않은 시간 동안에 크고 작은 발굴성과가 있었다. 본고의 작성에 근간이 되는 三陽洞遺蹟에 대한 조사 역시 제주고고학의 큰 성과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고고학”이란 주제로 제13회 호남고고학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聚落을 통해 본 耽羅의 成立과 展開”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다. 본고는 제13회 호남고고학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게재하였음을 밝혀둔다.

남한지방의 고고학적 편년설정은 靑銅器時代-初期鐵器時代-原三國時代-三國時代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가운데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 및 설정에 대해 다양한 異論이 제기되는 원인은 이전시기와 달리 각 지역마다 다양한 考古學의 文化樣相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제주지역도 이 단계의 고고학적 특징이 남한지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이를테면 남한지역에서는 이미 소멸한 松菊里型文化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점, 硬質無文土器가 점차 打捺文土器로 대체되고 있으나 무문토기 제작수법을 계승한 赤褐色硬質土器가 여전히 중심토기로 사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중심묘제로 알려진 고인돌이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 활발하게 축조되고 발전하는 점 등은 제주지역이 남한지방의 보편적인 문화현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의 고고학적 문화는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 나름대로의 고고학적 시대구분과 편년이 제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청규는『濟州島 考古學研究』를 통해 제주고고학의 편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대규모 발굴조사에 의해 누적된 자료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시대구분 및 편년에 있어 再考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문토기 시대 말기~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고고학적 자료가 최근에 증가하면서 이 시기에 대한 새로운 단계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삼양동유적의 대규모조사를 통해 탐라의 성립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삼양동유적을 비롯한 대규모취락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라성립기를 설정하고 취락의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背景 및 時期設定

1. 研究背景

제주도의 구체적인 고고학적 편년은 이청규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그는 선사시대 시기 구분에 있어 토기를 중심으로 有文土器時期-無文土器時期-郭支1式土器時期-郭支2式土器時期 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耽羅以前時代와 耽羅時代로 대별하고 탐라시대는 다시 전·후기로 세분하고 있다(이청규 1995, 348쪽). 그 구체적인 편년안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上攀里式土器 단계 이후 막바로 괘지리식토기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삼양동유적을 비롯하여 龍潭洞일대의 취락에 대한 조사결과 상모리식토기에 후행하는 시기로 直立口緣土器와 圓形粘土帶土器가 동반되는 단계, 三陽洞式土器와 灰色軟質土器가 출토되는 단계의 취락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삼양동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시기의 공백을 메워줄 만한 유적이 없었다.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모리식토기 단계에서 막바로 괘지리식토기 문화가 연결되는 시대구분이 불가피하였다.¹⁾

이는 자료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제주도의 고고학적 환경과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다. 즉 섬이라는 독립된 지역이 갖는 지리적인 고립성으로 인해 남한지역과 다른 재지계의 문화가 전통성을 갖고 장기간 지속된 결과에서 초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 하지만 소규모 조사와 한정

<표 1> 상고시대 제주도 문화변천 과정(이청규 1995, 338쪽에서 인용)

時期區分		政治社會的 變遷		土器文化	
時期	年代	對內的 狀況	對外關係	赤褐色土器	灰色陶器
耽羅以前	500~0B.C.	小規模社會	南韓流入	上攀里式土器	
耽羅前期	0~300	位階化	馬韓交易	郭支1式土器	原三國陶器
	300~500	初期社會	馬韓交易	郭支1式土器	馬韓陶器(?)
耽羅後期	500~660	國主支配의	百濟朝貢	郭支2式土器(?)	百濟陶器(?)
	660~900	位階化社會	新羅朝貢	郭支2式土器	統一新羅陶器

1) 이러한 토기변화상에 대해 이청규는 용담동 칠기부장묘와 괘지패총 2지구 등에서 퇴화된 상모리식토기가 괘지리식토기에 선행하여 출토됨에 따라 상모리식토기가 발전과정을 거쳐 소멸되는 과정속에서 송국리식토기 말기형 혹은 군곡리식 외반구연호의 유입을 통해 괘지리식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이청규 1995, 172쪽). 하지만 최근에 조사된 동명리유적을 보면 구순각목+공렬+단사선문토기, 순수공렬·각목토기가 출토되었고 이어 직립구연토기,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어(濟州文化財研究所 2004e, 38쪽) 삼양동유형의 토기조합상이 후행하는 양식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삼양동유적에서 송국리형주거지에 선행하는 장방형 내지는 방형계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직립구연토기 위주의 조합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용담 월성로유적에서는 장방형주거지에서 직립구연토기, 호형토기가 출토되었으나(강창화·김경주 2003, 36쪽) 순수공렬·각목토기는 출토되지 않고 있어 어쩌면 순수공렬·각목토기 이후에 이러한 토기조합상을 보이는 단계의 유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원인에는 濟州海峽을 사이에 두고 독립된 지리적인 장애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이청규 1995, 19쪽). 따라서 제주고고학을 전공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남한지역 문화가 유입 또는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체기간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남한지역의 편년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표 2〉 제주 상고시대 시기구분과 정치·사회적 변천상(강창화 2003, 41쪽에서 인용)

時期區分		政治·社會的 變遷		土器文化	
時代	所屬年代	內部	外部	在地產	外地產
無文土器時代	B.C. 500~B.C. 150	定着社會 (小規模社會)	南韓流入	上攀里式土器	孔列土器
耽羅時代初期	B.C. 150~A.D. 150	聚落社會		三陽洞式土器	粘土帶土器
耽羅時代前期	A.D. 150~500	立階化	馬韓交易	郭支里式土器	馬韓系土器
		初期社會	馬韓交易		百濟系土器
耽羅時代後期 (耽羅國)	A.D. 500~660	國主	百濟朝貢	高內里式土器	統一新羅土器
	A.D. 660~935	支配社會	新羅朝貢		唐陶瓷器
	A.D. 936~1105	星主 體制社會	句當使 派遣		高麗陶器 宋陶瓷器

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시대설정이 상정되었고 이로 인해 상모리식토기의 하한이 지나치게 내려 오게 되었다. 따라서 후행하는 시기의 토기조합상 역시 상하한을 내려잡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무튼 현재의 자료를 종합하면 상모리식토기 이후에 재지산의 직립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 그리고 외지산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송국리형 주거문화 단계가 광지리식토기 단계에 앞서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최근에 강창화는 광지리식토기에 선행하는 삼양동식토기의 존재를 바탕으로 탐라시대 전기에 앞선 초기를 설정하고 탐라시대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삼양동식토기와 점토대토기가 동반되는 시기를 설정하고 이청규 편년안의 탐라전기에 선행하는 탐라초기를 추가하였다(강창화 2003, 41쪽).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강창화는 삼양동취락의 형성시점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점토대토기와 송국리형토기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강창화, 2003, 28쪽). 하지만 필자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즉 송국리형토기가 남한지역에서 유입되었다면 적어도 용담동과 삼양동의 초기 취락에서 송국리형토기가 다수 출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송국리형토기라고 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³⁾ 다만 송국리형토기의 변형으로 여겨지는 토기가 삼양동 I 지구 6호주거지 등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전남지방의 영암 장천리 출토 토기와 유사성이 보일 뿐이다. 또한 그는 이 시기의 토기변화상을 정리하여 기원 전후한 시기에 3단계 말기공렬토기 집단과 삼양동식토기 집단 그리고 철제무기를 소유한 광지리식토기 사용집단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지리식토기집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흡수

있다.

3) 대포동 오뎅이케 출토 토기가 송국리형토기와 비교적 유사성이 관찰되며(국립제주박물관 2001, 55쪽)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유구석부 역시 송국리형단계에 해당한다(배진성 2000, 52쪽). 또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삼각형석도의 경우 송국리형단계에 금강유역에서 출현하여 영산·섬진·낙동강 등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손준호 2001, 54쪽). 따라서 송국리형단계의 유물이 간헐적으로나마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

통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개의 집단이 동시기에 혼재하였다는 추정은 삼성신화에 바탕을 둔 해석으로 여겨지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문토기시대 말기 이후 송국리형주거지에 선행하는 단계의 장방형주거지에서 전 시기와 다른 토기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논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즉 무문토기 말기형태인 단순공렬과 각목토기가 동반되지 않는 직립구연무문토기 단순기가 용담동 월성로유적 등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기를 소유한 광지리식토기 집단의 흡수통합 문제는 외도동유적에서 보듯이 삼양동식토기가 주를 이루면서 광지리식토기가 일부 출현하는 단계로 동시기에 공존했던 유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흡수통합 보다는 삼양동식토기에서 점진적인 발전에 의해 광지리식토기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2. 時期設定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兩人的 시대구분을 전제로 하여 최근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구분 試案을 제시하고 취락의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탐라의 성립과 전개과정에 대한 편년안은 탐라시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안과 초기를 추가하여 3단계로 설정하는 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전자의 시기구분안을 보면 삼양동유적을 비롯한 최근의 발굴성과에 의해 탐라시대 전기에 선행하는 단계의 시기설정이 불가피함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후자의 시기구분안을 살펴보면 탐라시대 전기에 선행하는 삼양동유적을 표지로 하여 초기를 설정하고 있어 탐라전기와 시기를 구분하는 점에서는 필자 역시 동조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취락의 형태와 특징등에 있어서 3단계의 변화과정이 상정되며 송국리형주거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 무덤의 출현이나 제주 전역이 단일한 토기양식으로의 통일성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후행하는 탐라전기에 비해 유적수가 매우 적을 뿐만아니라 제주 서북부 지역에 주로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시기의 취락은 탐라전기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제주전역에 대한 점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가 탐라시대 전기와는 다른 고고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이 시기를 탐라시대 전기에 선행하는「耽羅成立期」로 설정하고자 한다.⁴⁾ 탐라성립기의 구체적

4) 이 시기는 남한지역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혹은 삼한시대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본고에서는 일단 탐라정치체의 성립단계라는 의미에서 탐라성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반면에 탐라시대 전기는 탐라정치체의 鼎全域 단일화가 이루어진 단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대해 탐라이전 또는 탐라국형성기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탐라이전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청동기시대를 대부분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탐라국형성기는「耽羅國」또는「耽羅小國」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어려운 상태에서 탐라국형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문헌연구자들에 의하면 수장사회를 소국단계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B.C. 2~A.D. 2세기경에 탐라소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박원실, 1993, 294쪽)와 5세기 후반 이후에 원초적「國」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의견(진영일 1994, 39쪽)이 제시되고 있다. 탐라성립기라는 용어 역시 본고에서 논하는 시기를 완전히

인 편년과 제특징은 IV장에서 試案提示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聚落의 立地 및 範圍

1. 立地條件

탐라성립기의 취락은 대체로 해발 50m 미만의 해안 및 하천변 단구상 평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점은 선사시대인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飲用水의 취득⁵⁾ 및 주 식량원인 어로와 수렵채집 활동이 주된 생업경제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외부와의 직·간접적인 교류와 관련된 대내외적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 대부분 해안변에 형성된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탐라성립기의 대부분 유적은 하천지류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거나 해안선을 따라 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농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탄화된 곡물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농경의 흔적을 일부 찾을 수 있다.⁷⁾

한편 이청규는 탐라전기의 주거분포를 해발높이와 해안에서의 거리를 환산하여 해발 10m 이상 70~80m 미만의 범위로서 해안에서 2km 범위내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그는 마을에 대한 입지조건으로 用水條件과 土壤條件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外地物品을 운반 조달받을 수 있는 交通環境, 수렵과 食糧原 植物채집이 쉽고 연료조달이 유리한 林野環境, 생산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岩石과 鑛物의 분포조건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이청규 1995, 200~223쪽).

탐라성립기의 취락은 탐라시대 전기 마을의 입지조건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바로 탐라성립기의 취락입지가 탐라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락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하천변의 입지인 경우에는 단지 음용수의 취득만이 목적이 아닌 외부로부터

게 대체할 수 없다고 여겨지며 차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된 후에 명확한 시대구분 용어가 정립될 경우 이를 따르고자 한다.

- 5) 제주도의 선사시대 취락형성 배경이 음용수 취득에 유리한 해안변 및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1930년대 조사된 취락분포 자료에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근대사회까지도 이러한 조건이 취락형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樸田一 2005, 9~10쪽; 195~202쪽).
- 6) 『南槎錄』(1601)과 『南槎日錄』(1679)에 전하는 포구를 확인한 결과 현재 대략 84곳 정도가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팍지~종달에 이르는 제주도 북부지역에 37곳이 해당하고 있다(고광민 2004, 279~282쪽). 또한 남해안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連陸浦門을 거쳐야만 했는데 원래 5개 포구였다가 1555년부터 2개의 포구로 한정되었고 모두 제주도 북부에 집중되고 있다(고광민 2004, 426쪽). 따라서 제주도 북부지역에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 7) 삼양동유적과 외도동유적에서 보리, 콩, 벼 등 탄화곡물이 출토되었으나 농경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60쪽). 종달리와 팍지리에 대규모패총이 형성되고 이곳에서 다량의 동물뼈(사슴, 멧돼지, 소, 말등)가 출토되는 점(김황룡외 2002, 319쪽)을 보면 당시의 주 식량원은 패류와 동물에 상당한 의존성이 강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의 방어적 조건도 갖추고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⁸⁾ 또한 일정한 규모의 평탄대지가 형성된 지역도 대규모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한편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입지는 대체로 탐라성립기의 입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시기에 들어와 주변으로 소규모취락이 급증하고 있다.⁹⁾ 이는 중심취락이 확대되는 과정속에서 중심취락에 기반을 둔 주민집단이 소규모취락을 주변에 형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중군집 이상의 고인돌 분포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 1~2기 또는 소군집의 지식묘가 배치되는 양상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서북부지역인 용담동과 외도·광령리 일대에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곳에 5~6형식의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축조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탐라성립기~탐라시대 전기에 중심 취락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2. 立地類型과 空間的 範圍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성립기~탐라전기의 취락은 외부와의 교류와 관계된 지리적 요충지에 중심취락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교류의 출발지이자 기착지인 해안변¹⁰⁾ 교역로에서 가깝고 전술한 입지조건이 대체로 구비된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면 결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탐라성립기~탐라전기의 유적입지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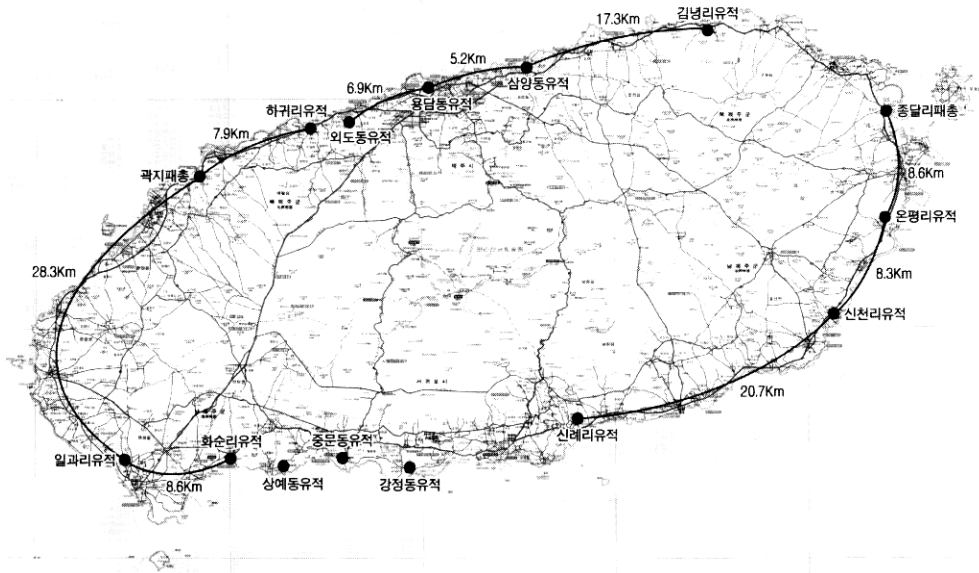
순번	입지유형	해발높이	대표유적	해안과의 거리	갯수	백분율(100%)	비고
1	해안저지성 입지	15m 이하	화순리, 종달리	200m 내외	36	32.7	
2	해안단구성 입지	15~30m	삼양동	300m 내외	32	29.1	
3	하천단구성 입지	30~50m	외도동, 용담동	2km 내외	22	20.0	
4	저구릉성 입지	50~70m	광령리	2.5km 내외	11	10.0	
5	고지성 입지	70m 이상	도남동	3.9km 내외	9	8.2	
총계					110	100	

8)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 건천으로 강우시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 많다. 또한 유적의 위치가 대부분 해안에서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변의 풍부한 용천수를 이용하기에도 거리상 그다지 멀지가 않다. 따라서 대부분 'U' 자형의 협곡을 형성하고 있는 하천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자연적인 환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기준에 알려진 탐라전기 유적중에서 탐라성립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차후 지속적인 조사에 의해 명확한 편년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시기별 취락의 분포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가파도는 주거와 생활공간 그리고 패총과 고인돌이 모두 형성된 하나의 단위 취락구조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본섬의 하모리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상동의 해안변에 패총이 형성되어 있고 약 150m 가량 올라온 평탄대지상에 취락(유물산포지)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에 정반대인 하동의 해안변에는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결국 본섬의 해안과 마주보는 곳이 대내외적으로 교류의 출발지이며 이곳의 평탄대지에 취락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1, 30쪽; 제주문화재연구소 2004d, 51쪽).

11) 부속섬과 바위그늘 및 동굴유적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탐라성립기~탐라전기의 취락간 공간 범위

〈표 3〉의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탐라성립기의 취락입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크게 海岸低地性 立地(해발 15m 이하), 海岸段丘性 立地(해발 15~30), 河川段丘性 立地(해발 30~50m), 低丘陵性 立地(50~70m), 高地性 立地(70m 이상)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유적은 해안에서 2km내외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높이도 50m 이하에 위치하는 곳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해안에서 2km 내외의 해발 50m 이하인 해안저지대와 해안단구 및 하천단구에 주로 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바로 탐라성립기~탐라시대 전기 취락형성의 입지조건이 해안에서 반경 약 2km 내외가 취락의 空間的 生活領域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다.

제주시권 최대의 유적으로 여겨지는 용담동유적의 경우에 유물산포지가 반경 2.2k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¹²⁾ 하나의 중심취락을 형성하는 공간적 범위는 반경 2~3km이내에 해당한다. 또한 탐라성립기~탐라전기의 취락중에 일정규모 이상의 유적에 대한 유적간 거리를 분석해보면 동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취락과 취락간의 거리는 대략 8km 내외의 공간적 범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규모취락이 집중된 서북부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용담동을 중심으로 5~8km 정도의 일정한 공간적 취락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로 하천과 해안변의 입지조건에 따라 거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취락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서북부의 광지패총과 서남부의 일과리유적간의 간격은 28.3km이며 서남부의 신례리

12) 외도동유적의 경우도 광령리고인돌군을 포함하여 반경 2.1km 정도의 유물산포범위를 보이고 있어 탐라성립기~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중심취락의 공간적 범위는 대략 반경 2km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제주시- 참조).

유적과 동남부의 신천리유적간의 간격은 20.7km이고 서북부의 삼양동유적과 동북부의 김녕리유적간의 간격은 17.3km이므로 각각 17km 이상의 거리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다. 결국 탐라성립기~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취락의 분포는 주변취락을 포함한 중심취락군이 약 17km 이상의 거리간격을 두고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인돌이 중군집(5~20기 가량 분포)을 이루며 형성된 곳은 동북부지역을 제외하고 용담·외도·광령권의 서북부와 일과·화순·상예권의 서남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동남부의 신천·신평리일대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나정욱 2004, 242쪽). 이는 용담·외도·광령권과 일과·화순·상예권 일대에 대규모취락과 유물산포지가 위치하고 있어 취락과 고인돌 분포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탐라성립기~탐라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밀집된 지역에는 고인돌 역시 밀집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취락내부에서는 취락의 배후지역에 주로 고인돌이 축조되어 있고 취락의 중심에서 대략 0.7~1km 미만에 대체로 위치하고 있다. 가파도의 경우에도 유물산포지의 중심에서 약 500~700m 가량 떨어져 분포하고 있어 본섬 취락의 공간구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제주문화재연구소 2003a, 60쪽).

IV. 聚落의 變遷과 特徵

1. 耽羅成立期의 聚落

1) 段階設定

탐라성립기에 형성된 취락의 수혈주거지는 송국리형주거지가 대표적이며 3단계에 걸쳐 주거구조의 변화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전기는 제주지역에 송국리형 주거형태가 유입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제주시 용담동 일대의 용문로와 먹돌로유적이 해당된다. 용담동 일대의 취락은 주로 漢川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는 대체로 직경 4m 내외로 일정한 편이다. 타원형구덩이의 장축방향은 해안이나 하천변과 평행한 장축을 이루고 있다. 주거지 내부의 타원형구덩이는 대부분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전기의 취락은 1기가 단독적으로 확인되거나 3~4기 가량의 주거지가 중복없이 확인된다. 이 시기의 취락은 중기에 비해 주거지간 또는 유구간의 공간간격이 넓게 나타나는 점으로 볼때 장기간에 걸친 취락의 성행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삼양동유적에서도 이 단계에 주거지가 축조되고 있으나 다음 단계인 중기에 들어서 취락이 더욱 확대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계의 토기는 적립구연토기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 원형점토대토기가 동반 출토되기도 한다.

중기는 용담동과 삼양동 일대에 송국리형 주거형태가 축조되기 시작한 후 취락의 규모가 확대

구분 내용	무문토기시대 말기	탐라성립기		
		전기	중기	후기
주거 유형	①	①	①	
	②	②	②	①
	③	③	③	②
	④	④	④	
	⑤	⑤	⑤	⑤
유적	① 용담 월성로 ②~⑤ 삼양동	① 용담 용분로 ②~④ 용담 벽돌로	①~⑤ 삼양동	①~② 외도동

〈그림 2〉 탐라성립기의 주거유형 변천도

되는 시기이다.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형태는 대체로 전기와 같은 송국리형 주거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직경 6m 가량되는 대형주거지가 출현하기도 하며 주거지간 중복양상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시기 취락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타원형구덩이의 형태변화를 들 수 있다. 주로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내부와 외부에 각각 1개씩 배치되는 형태, 양단 주혈이 매우 얇아서 그 형태를 알아 볼 수 없거나 아예 타원형구덩이만 남아있는 형태도 나타난다.

주거지의 배치상태를 살펴보면 대략 5~6기 이상이 중앙부에 일정한 공간(광장)을 두고 배치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즉 이러한 소단위의 세대별 공간을 형성하고 다시 이러한 소단위 여러개가 모여 대단위의 취락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삼양동유적 단계에서 대형 굴립주가 출현하는 점은 대규모 취락의 공간구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¹³⁾ 이 단계의 토기는 대체로 삼양동식토기가 주류를 이루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동반 출토되며 말기에 회색

13) 삼양동유적의 굴립주는 창고적 기능이 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창고 등 굴립주건물의 출현은 잉여생산물의 축적을 의미하며 이는 한 집락내에서의 계층화를 유발하여 유력권력자(=수장)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배덕환 2000, 21쪽). 따라서 중기의 어느시점에는 유력권력자의 등장을 상정해 볼 수가 있다.

연질토기가 새롭게 등장한다.

후기는 기존의 송국리형주거 형태가 소멸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개별단위의 유구가 종합적으로 등장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양상은 외도동유적의 취락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 이 시기에는 주거지 1~2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독적으로 축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변으로 우물과 수혈유구 등 3~4기의 부속유구가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로 주거, 음용수(우물), 저장시설 등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거와 관련된 시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어 중기에 비해 세대별 단위 공간구성이 더욱 세분화되고 발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지는 대체로 직경 450cm 내외이며 중앙부에 원형수혈을 굴착하고 좌우로 주혈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는 토기와 천석 등을 이용하여 내부 난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한 발전된 형태의 주거지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전 단계에 비해 주거지 내부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내부구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후기에는 점토대토기가 소멸하고 대체로 삼양동식토기와 회색연질토기의 점유율이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삼양동식토기는 이전시기에 비해 기형상의 통일성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삼양동식토기의 정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광지리식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가 이 단계에 새롭게 등장한다.

2) 變遷樣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라성립기의 주거형태에 대해 대략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장에서는 취락의 변천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원전 3세기경에 송국리형주거지를 축조하는 집단이 용담동 일대에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을 형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주거지를 축조했던 주민집단의 성격과 송국리형주거 문화의 유입에 대한 문제는 남한지역과의 시공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중서부 이남과 영호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 형태는 지리적여건을 고려해 볼때 서남해안을 통해서 제주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⁴⁾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출 유입지는 아마도 용담동 일대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용담동 일대에서 축조되기 시작한 송국리형주거 문화는 단위별 공간구성을 이루는 대규모의 거점취락으로 성

14) 3차에 걸친 삼양동유적 조사에서 총 155기에 대한 내부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이 중 타원형구덩이가 확인된 52기의 주거지를 분석해 보면 타원형구덩이가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형태가 47기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삼양동에 형성된 송국리형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의 내부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주거형태가 보편적이며 이는 영남지방 보다는 중서부지역과 호남지방에서 나타나는 송국리형주거형태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강창화·김경주 2001, 107쪽). 또한 금강·영산강·보성강 유역권에서 A①유형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이종철 2000, 60쪽). 하지만 주거지의 형태가 중서부지역과도 유사성이 보이며 樂浪系遺物(옥환, 동축, 산지향 유물세트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지근거리에 있는 남해안을 기점으로 하는 연안로를 따라 형성된 지속적인 원거리교역의 결과로서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조선후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商船이 제주에서 전북 부안까지 약 1800여리에 해당하는 거리에 도달하는데 대략 3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고할만 하다(고동환 2003, 321~323쪽).

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⁵⁾ 하지만 중기에 접어들면서 삼양동 일대에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고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기의 대표적인 유적인 삼양동유적에서는 대략 5~6기 또는 그 이상의 주거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공간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거지의 규모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대형주거지와 함께 굴립주가 출현하고 있으며 주거지 내부에서 각종 위신재 등 계층분화를 상징하는 유물이 증가하고 있다. 내부 타원형구덩이의 형태 역시 1~2차례에 걸쳐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삼양동유적은 송국리형주거문화의 기초 아래 형성된 취락으로 외부와의 직간접적인 대외교류를 통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불평등화가 진행되고 권력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점은 대형주거지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각종 위신재와 장신구를 통해 그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삼양동 취락은 주거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대략 기원후 1세기 후반 이후에 갑자기 소멸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거론을 하기에는 자료의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¹⁶⁾ 어쨌든 기원후 2세기경 외도동유적에서 새로운 취락이 등장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유적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도동유적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의 기본형인 원형플랜의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다. 다만 주거지 내부시설이 보다 더 발전되고 다양한 시설이 부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내부 중앙부에 타원형구덩이 혹은 수혈을 굴착하여 그 외부 양단에 배치된 주혈 및 초석에 기둥을 올려 주거지를 축조하는 점은 이전 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의 축조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 내부 시설이 이전 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거지로 발전하게 되는데 타원형구덩이의 역할은 축소된 반면 내부의 난방 및 배수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여 주거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주거지 주변으로는 우물과 수혈유구 등 부가적인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어 이전의 공간배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에 공간구조의 세분화가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3) 編年

탐라성립기에 대한 구체적인 편년안¹⁷⁾은 강창화의 제안이 유일하다(강창화 2003, 41쪽). 앞서 살펴본 편년안은 기존의 연구성과가 탐라전기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라성립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던데에도 원인이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 시기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어 탐라전

15) 본고에서 논하는 내용은 이미 용담동 일대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어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차후 용담동 일대에 대한 조사가 진전될 경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6) 삼양동취락이 갑자기 소멸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강창화는 팍지리식토기집단에 의해 밀려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강창화 2003, 31쪽). 하지만 갈등관계로 인해 소멸하였다면 방화에 의한 폐기행위 등 강제성이 보이는 주거지 폐기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송만영 1995, 133쪽; 이현석외 2004, 103쪽) 삼양동취락에서는 그런 행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구가 극히 드물다.

17) 이 시기의 토기에 대한 편년설정은 필자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김경주 2001, 70~73쪽).

기와 구분되어 선행하는 시기에 대한 개략적인 편년이 가능하게 되었다.

탐라성립기의 취락과 토기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편년을 고찰해보면 일단 제주지역에 송국리형주거형태가 출현하는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를테면 용담동 용문로유적과 먹돌로유적의 경우 기존의 직립구연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지산 태토의 원형점토대토기가 일부 동반 출토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해안 지역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교체연대를 보면 대략 기원전 2세기 중엽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⁸⁾ 따라서 제주지역에 외지산 태토¹⁹⁾로 제작된 원형점토대토기가 初出한 시기는 늦어도 기원전 2세기 중엽 이전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삼양동유적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의 이른형식으로 분류되는 동최대경의 위치가 동체 상부에 위치하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II-1지구 22호주거지에서 구연부 하단에 돌대가 부착되고 최대경이 동체 중앙 또는 그 아래에 형성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장수 남양리(윤덕향 2000, 28~29쪽) 등에서 확인된 예가 있다. 돌대가 부착된 토기는 삼양동 II-1지구 적석유구에서 출토된 흑색마연장경호와 함께 IIa식으로 분류되며 III기인 기원전 3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되고 있다(박진일 2000, 89쪽). 따라서 III기 단계에 IIa식의 원형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가 출현하는 것으로 편년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원전 3세기 후반경에는 삼양동유적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²⁰⁾ 또한 삼양동 출토 유구석부는 대체로 II나3식·II나2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유구석부는 남한지방의 원형점토대단계로 편년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배진성 2000,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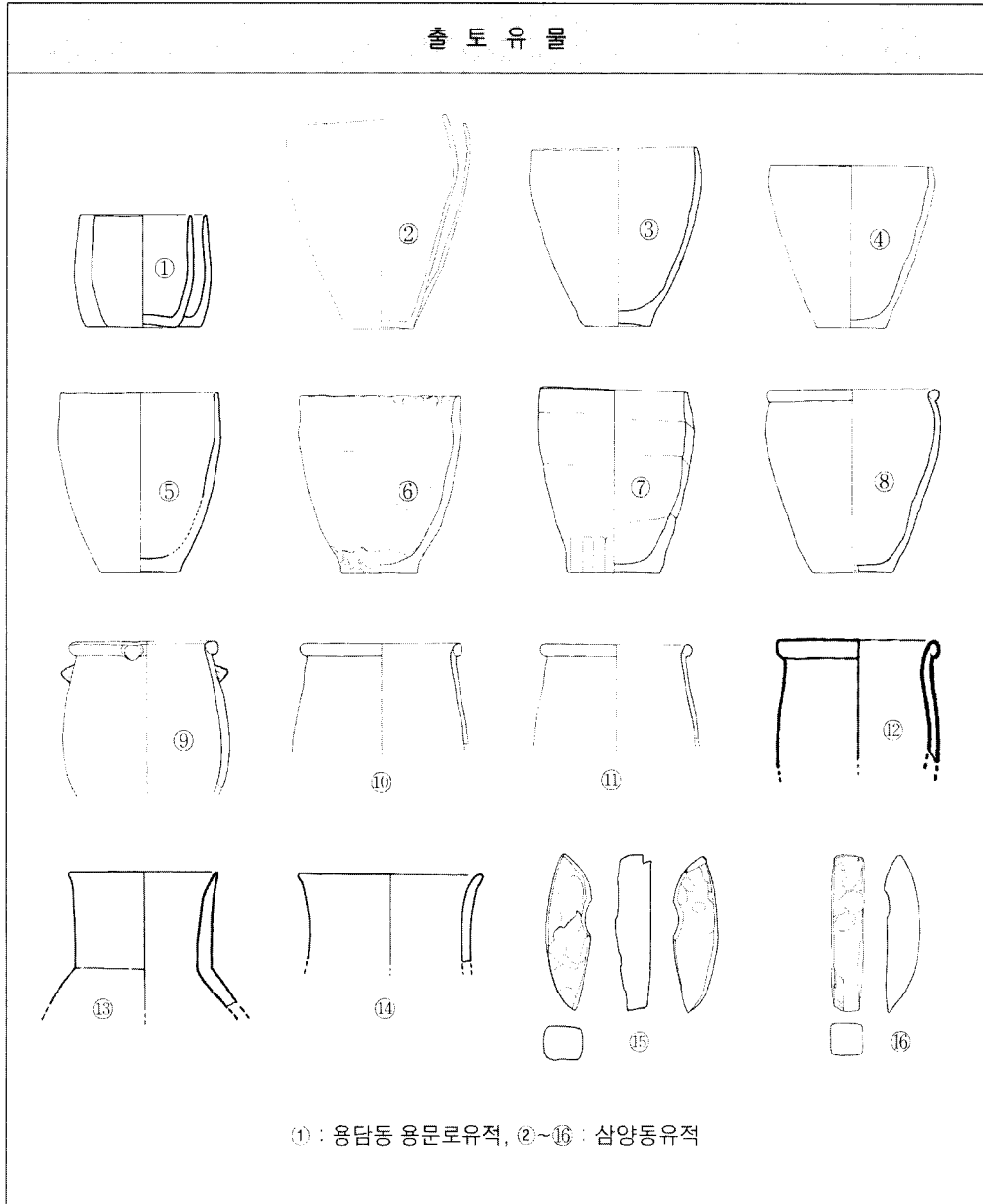
반면에 제주북부해안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전남지역의 경우 영암 장천리(최성락 1986), 승주 대곡리(최몽룡·김경택 1990), 보성 금평유적(임영진외 1998) 등의 송국리형주거지 연대를 B.C. 5세기~3세기대로 설정하고 있다(김규정 2000, 95쪽). 이 점에서도 기원전 3세기경에는 제주지역에 송국리형 주거형태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탐라성립기 전기 초반에 해당하는 먹돌로유적과 삼양동 I 지구 11호주거지 등의 AMS분석결과도 이에 부합되는 절대연대 편년자료가 제시되었다.

이상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하여 송국리형주거문화가 적어도 기원전 3세기 후반경에는 제주지역에 유입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 살펴볼 중기의 연대와 비교해 전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2세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8) 신경숙은 호남지방의 원형점토대토기 시기를 기원전 3세기말에서 1세기 후반까지로 편년하고 중심연대를 기원전 2세기대로 추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중심연대를 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하고 하한을 기원전후한 시기까지로 보고 있다(신경숙 2002, 53~61쪽).

19) 제주도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태토성분을 통해 외지산과 재지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외지산태토의 토기는 적어도 육지부 특히 남해안 일대에서 유행하거나 소멸하기 이전 단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재지산태토는 외지산토기가 유입된 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다소 늦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 박진일의 편년안을 수용한다면 제주지역에서 직립구연토기와 외지산 원형점토대토기만이 순수하게 동반 출토되는 유구의 경우 기원전 3세기 후반경에 위치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탐라성립기 전기의 출토유물

한편 중기에 해당하는 삼양동유적에서는 절대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물이 일부 출토되었다. 먼저 삼양동 I 지구 27호주거지에서 동축²¹⁾이 1점 출토되었다. 한수영은 이 동축을 삼릉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형태가 정백동 37호분(B.C. 66년)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편

21) 이와 유사한 동축이 1998년 조사된 광주 신창동 저습지 A지구에서 출토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경의 유적으로 편년하고 있어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신상효외 2001, 121쪽).

〈표 4〉 탐라성립기~탐라시대 전기 유적에 대한 AMS 측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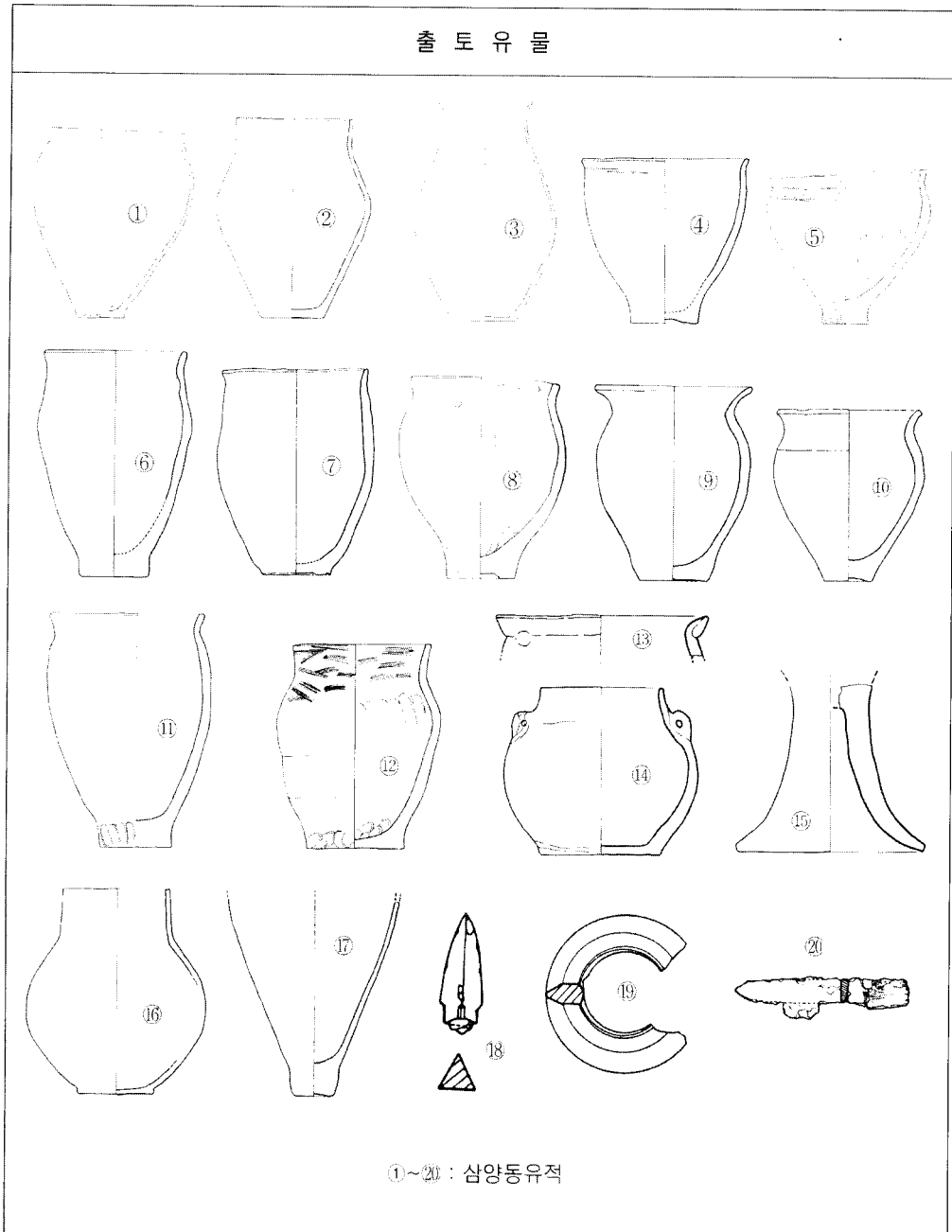
내용 순번	유적명	지구	유구명	방사성탄소연대	연대순금 맞춤결과	시기
1	먹들로유적		1호주거지	2130±60BP	340 or 130BC	탐라성립기 전기
2	삼양동유적	I 지구	1호주거지	2100±50BP	110BC	탐라성립기 중기
3	삼양동유적	I 지구	11호주거지	2290±40BP	380 or 260BC	탐라성립기 전기
4	삼양동유적	II-1지구	불다짐소성유구 2호	1960±50BP	50AD	탐라성립기 중기
5	삼양동유적	III지구	1호주거지	2010±90BP	20BC	탐라성립기 중기
6	삼양동유적	V 지구	7호주거지	1950±50BP	60AD	탐라성립기 중기
7	삼양동유적	V 지구	12호주거지	2060±30BP	100BC	탐라성립기 중기
8	삼양동유적	V 지구	16호주거지	2050±80BP	70BC	탐라성립기 중기
9	삼양동유적	V 지구	17호주거지	2160±40BP	330 or 200BC	탐라성립기 전기
10	삼양동유적	V 지구	20호주거지	2020±60BP	20BC	탐라성립기 중기
11	외도동유적	II-2지구	6-1호 수혈유구	1740±60BP	310AD	탐라성립기 후기
12	좌보미유적		2호 소토유구	1910±50	80AD	탐라시대 전기
13	좌보미유적	W4Grid	2-1호 수혈유구	1520±60	520AD	탐라시대 전기

년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한수영 2004, 68쪽). 또한 삼양동 II-1지구 16호주거지 출토 고배형토기는 I 식 고배에 해당되며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신경숙 2002, 61쪽). 이외에도 II-2지구 6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옥환은 북한 낙랑구역 정오동 1호분에서 출토된 옥환과 형태상 유사하다.²²⁾ 이 옥환은 기원후 1세기 중반경인 A.D. 50년으로 비정하고 있어 중기의 연대를 어느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조선유적유물편찬위원회 1989, 151쪽).

반면에 V 지구 8-2호와 9호주거지에서는 삼양동식토기와 함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삼각형점토대토기의 하한연대는 정확치는 않지만 8-2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원뿔형토기²³⁾와 동일한 기형이 광지패총 V 지구에서도 출토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원후 2세기대 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판단된다.²⁴⁾

이상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기의 중심연대는 대략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삼양동 출토 옥환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추정되는 자료가 일본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출토지는 명확치 않으나 낙랑제로 소개되고 있다(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1993, 33~35쪽).
 23) 원뿔형토기의 경우 광지패총 V 지구에서 광지리식토기와 동반 출토되었으나 삼양동유적에서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 기종의 初出時期는 이 보다 앞서는 삼양동유적의 말기경에 출현하여 광지리식토기가 사용되는 시기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24) 영남지역의 경우 기원전 2세기 말~기원전 1세기 전엽에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전형적인 틀이 갖추어졌고 생활유적에서는 기원 2세기까지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사용되다가 연질토기로 변화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이재현 2004, 22쪽). 따라서 삼양동유적의 하한도 기원 2세기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4〉 탐라성립기 중기의 출토유물

후기는 삼양동 취락이 완전히 사라지고 외도동유적에서 취락이 성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원형평면의 주거형태와 내부 중앙부에 수혈을 조성한 점, 삼양동식토기가 출토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송국리형 주거형태의 변화형 내지는 말기형으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삼양동식토기와 회색연질토기의 점유율이 높기는 하나 짝지리식토기와 함께 회청색경질토기가 일부 출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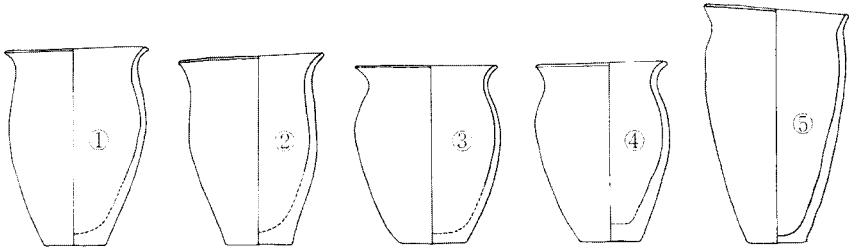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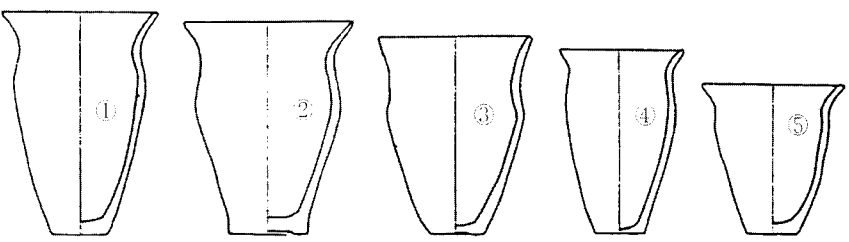
있다. 이를 통해 외도동유적은 삼양동식토기에서 광지리식토기로의 전환과정에 존재했던 과도기적 유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의 성행시기(김경주 2001, 73쪽)를 고려해 볼 때 이 시기는 대략 기원후 2~3세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耽羅時代 前期의 聚落

1) 變遷樣相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시기에는 광지패총과 종달리패총 등 대표적인 대규모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간단한 피트조사나 소규모 조사에 그치다 보니 전체취락의 규모나 주거형태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형편이다. 현단계에서는 탐라성립기와 탐라시대 후기의 주거형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늠해 볼 수 밖에 없다.

먼저 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취락과 관련된 유구는 서귀포시 중문동 배릿내유적과 애월읍 금성리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중문동 배릿내유적에서는 규모 480×380cm인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이전 시기 주거지와 비교해 볼 때 규모면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주거지의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수혈이 배치되어 있으며 수혈내부에서 소토무지가 확인되어

내용 구분	출 토 유 물				
탐라성립기 후기	 <p style="text-align: center;">①~⑤ : 외도동유적</p>				
탐라시대 전기	 <p style="text-align: center;">①~⑤ : 광지패총 5지구</p>				

· <그림 5> 탐라성립기 후기 ~ 탐라전기의 출토유물

주거와 관련된 생활유구로 추정된다. 보고자에 따르면 이러한 수혈은 주거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생활공간내의 일정한 목적하에 만들어진 시설물로 판단하고 있다(강창화·고재원 1999, 84쪽).

반면에 1997년도에 금성리유적에 대한 조사에서 이 시기와 평행하는 단계의 주거시설이 보고된 바 있다(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1, 72~75쪽). 보고자에 따르면 1호 圓形石列遺構의 내부는 소토다짐 되어 있으며 소토무지와 함께 생활공간과 관련된 시설·생활유물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가옥(원형돌담집)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자는『唐會要』「耽羅國」條의 문헌기록인「탐라는 신라의 무주 해상에 있다 … 그들의 집은 등글게 돌담을 둘러서 풀로 덮었다 …」²⁵⁾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해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원후 8세기대의 중심연대를 갖는 탐라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인 고내리유적에 대한 조사결과 A-95호 원형수혈주거지(강창화 1995, 248쪽)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이 시기까지 지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⁶⁾ 따라서 탐라성립기 후기의 주거형태와 함께 탐라전기에 해당하는 중문 베릿내유적과 탐라후기 고내리유적의 주거형태 등을 비교해 볼 때 금성리유적의 원형석렬유구는 주거지로 보기는 어렵다.『唐會要』「耽羅國」條의 기록은 수혈주거지의 지붕을 덮은 초가의 서까래가 지면에 닿은 부분에 적석을 돌려 지붕서까래를 고정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탐라시대 전기의 標識的인 토기인 광지리식토기는 전술하였다시피 삼양동식토기에 후행하는 토기임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외도동유적에서 두 양식의 토기가 동반 출토하는 점으로 미루어 삼양동식토기에서 광지리식토기로의 점진적인 발전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외도동에서 확인되는 원형수혈주거지가 적어도 탐라시대 전기의 어느단계까지는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내리유적에서 원형평면의 수혈주거지가 확인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탐라시대 전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취락의 규모와 주거지의 형태가 알려진 예가 거의 없지만 유물산포지를 통해 제주 전역에 크고 작은 취락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시기의 취락은 해안변, 하천변, 저구릉성 평지 등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입지의 다변화가 상정되지 못하고 기존의 입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혹은 이전시기에 점유하지 못했던 중심 취락의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 전역에 중심취락과 함께 주변에 소규모 취락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탐라가 이전시기에 비해 대외교류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생업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중심취락을 중심으로 인구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취락형태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구체적인 취락의 변천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三國史記』「百濟本紀」東城王條 기사에서

25) 『唐會要』, 「耽羅國條」, “耽羅在新羅武州海上… 其屋宇爲圓牆 李草蓋之…” 이 기록은 A.D. 961년에 편찬한 사서로 기원후 7세기 중엽경(661) 탐라국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26) 이 유구는 직경 450cm 가량인 원형계의 수혈유구로 조사 당시 필자를 포함한 현장조사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수혈유구의 규모가 여타 유구에 비해 월등히 크고 남벽에 잇대어 소토무지와 목탄이 출토되었고 바닥이 생토다짐처리되어 있으며 유구의 남쪽으로 소형 적석유구(노지?)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 시기의 수혈주거지로 판단하였다.

「동성왕 20년(498) 8월에 탐라에서 공부(貢賦)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친히 정벌하여 무진주(지금의 光州)에까지 이르렀다. 탐라에서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죄를 청하므로 그만두었다」²⁷⁾라는 내용을 통해 기원후 5세기 후반경에는 적어도 탐라가 대내외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정치체로 성장하였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기사임을 알 수가 있다. 즉 기원후 3세기 이후 제주 전역이 광지리식토기로 단일화되며, 중심취락 주변으로 소규모취락이 확대되고 인구가 급증하며, 대규모 패총이 등장하고 고인돌 축조의 우월성이 확인되며 유력개인묘의 축조를 통한 강력한 지배계층의 출현 등 일련의 사회적 변화는 탐라의 대내외적인 성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탐라가 대외교류를 통해 부를 축적한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내외적 중심취락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編年

탐라시대 전기의 상한연대는 외도동유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즉 삼양동식토기와 광지리식토기가 동반 출토하는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외도동단계에 광지리식토기의 출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외도동유적 II-2지구 6-1호 수혈유구에 대한 AMS측정결과 A.D. 310년의 절대연대값이 얻어졌다. 이로 미루어 볼때 기원후 3~4세기경에는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²⁸⁾

한편 이청규는 광지리식토기의 사용시기에 대해 그 출현시기를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하고 탐라후기의 대표적인 토기인 고내리식토기의 중심연대인 6~8세기대 이전을 하한으로 설정하여 대략 B.C. 1세기~A.D. 5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이청규 1995, 172~173쪽). 하지만 앞서 살펴본 듯이 외도동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삼양동식토기의 하한연대가 대략 기원후 2~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바 그 상한연대는 기원후 3세기경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산읍 수산 좌보미유적에서 탐라시대 전기의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주로 광지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수산 좌보미 유적(제주문화재연구소 2003b)에 대한 AMS측정 결과 A.D. 80년과 A.D. 520년의 연대가 얻어졌다. 이를 참고하면 광지리식토기의 하한은 대략 6세기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된다.²⁹⁾

3. 試案提示

앞서 살펴본 듯이 필자는 탐라시대 전기에 선행하는 단계인 탐라성립기를 설정하고 취락의

27) 『三國史記』, 『百濟本紀』, “二十年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28) 광지리식토기의 형성과정에 대한 문제는 필자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필자의 분류 IV형식이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에 해당되는데 기원후 3~4세기가 중심시기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김경주 2001, 82쪽).

29) 아직까지 광지패총에 대한 절대연대 분석자료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차후 광지패총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절대연대값에 대한 자료가 축적될 경우 광지리식토기에 대한 구체적인 편년과 후행하는 고내리식토기의 상한연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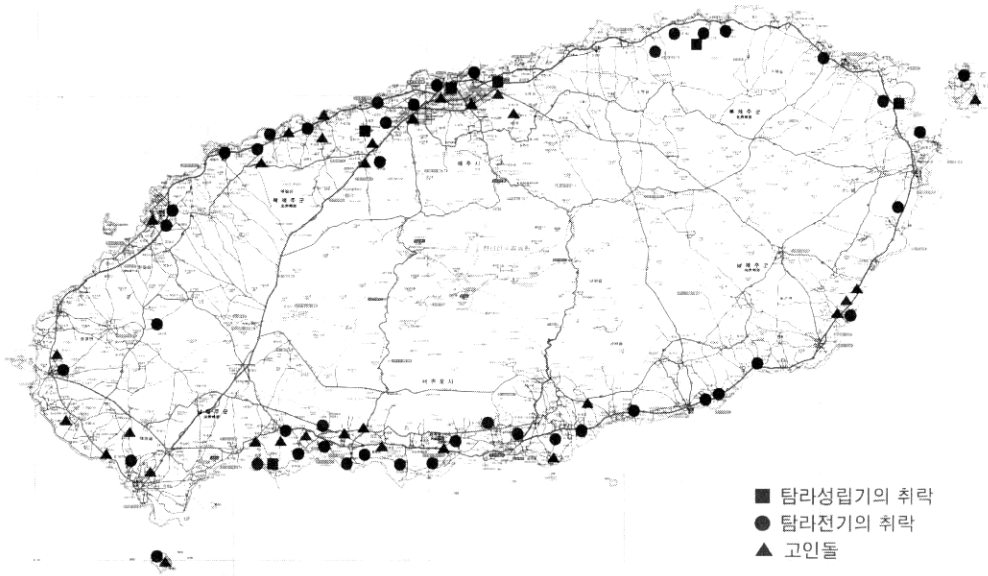
변천양상과 편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탐라성립기는 대규모취락의 출현과 송국리형주거형태의 성행, 점토대토기의 유입과 삼양동식토기의 성행, 교역 및 위세품의 증가 등 이전시기와는 다른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취락의 변천양상과 토기조합상의 변화를 통해 탐라성립기에 대한 試案을 제안하고 제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필자가 구분한 탐라성립기의 제특징을 살펴보면 ①기존의 장방형 또는 방형계 주거형과는 다른 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가 출현한다. ②상모리, 김녕리 등의 소규모 취락단계에서 용담동과 삼양동 등에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③기존의 무문토기(공렬계토기, 각목계토기 등)가 소멸하고 육지산 태토의 점토대토기가 유입되며 삼양동식토기가 주로 사용되는 시기이다. ④묘제에서도 지식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⑤五銖錢을 비롯한 각종화폐(이청규 1995, 194~195쪽) 등 산지향 출토 유물세트로 미루어 외부와의 직·간접적인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다량 확인되고 있다. ⑥玉環과 銅劍·銅鏃 등 위신재와 각종 장신구류가 증가하는 점으로 미루어 階層構造의 不平等化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⑦각종 석기류의 사용도 증가하지만 중기 이후에는 철기가 새롭게 등장한다.

반면에 탐라시대 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제주전역이 광지리식토기 문화권으로 단일화된 다. ②종달리와 광지리 등에 대규모패총이 등장하게 된다. ③새로운 유력 개인묘인 鐵器副葬墓(적석목관묘?)가 출현하며 철기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용담동 철기부장묘의 철제유물 세

<표 5> 耽羅成立期~耽羅前期의 時期區分 및 特徵(試案)

時期	編年	特徵	聚落 變遷	住居址 類型	土器文化	
					在地產	外地產
無文土器 時代 末期	~ B.C.200	~ B.C.200	小規模 聚落社會	長方形 및 方形系住居址	單純孔列土器 單純刻目土器 壺形土器 直立口緣土器	松菊里型土器(?)
耽羅 成立期	前期	B.C.200 ~ 100B.C.	大規模 聚落社會	松菊里型住居址의 流入期	直立口緣土器	末期型 松菊里型土器 圓形粘土帶土器 黑色磨研長頸壺
	中期	100 ~ A.D.100	大規模 聚落社會 不平等社會 進入	松菊里型住居址의 盛行期	圓形粘土帶土器 黑色磨研長頸壺(?) 三陽洞式土器	三角形粘土帶土器 灰色軟質土器
	後期	A.D.100 ~ A.D.200	大規模 聚落社會 單位世代別 分化 不平等社會 進展	松菊里型住居址의 消滅期	三陽洞式土器 郭支里式土器	灰色軟質土器 灰青色硬質土器
耽羅時代 前期	A.D.200 ~	A.D.200 ~	中心聚落의 形成 小規模聚落의 急增 位階化 初期社會	圓形竪穴住居址(?)	郭支里式土器 島全域 單一化	灰色軟質土器 灰青色硬質土器



〈그림 6〉 탐라성립기~탐라전기의 취락분포도

트는 탐라성립기에 진행된 계층구조의 불평등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지배계층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⑤이 시기에 유적수가 급증하는데 이는 인구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결되며 소규모취락이 증가하고 확대되는 일련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중심취락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⑥지석묘의 경우 전시기에 비해 축조형태의 우월성을 보이는 축조기술상의 발전이 진행된다. 즉 이청규가 분류한 1~3단계 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인 5~6형식의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축조된다(이청규 1995, 268쪽).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대의 취락의 변천과 편년을 바탕으로 탐라시대 전기에 선행하는 탐라성립기를 설정하여 제특징을 살펴보았다. 탐라성립기는 송국리형주거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취락이 성행하는 단계이며 점토대토기와 함께 재지산의 삼양동식토기가 중심토기로 사용되는 시기이다. 취락의 입지는 대체로 해안에서 반경 2km 이내의 해발 50m 이하인 해안단구 및 하천단구성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탐라성립기의 취락은 3단계에 걸쳐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기는 송국리형주거문화가 유입되는 단계로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기원전 3세기~2세기경에 해당한다. 중기는 송국리형주거문화의 성행기로 삼양동에서 대규모취락이 확대되는

시기이며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대에 해당한다. 후기는 송국리형주거지가 변화 소멸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로 외도동에서 확인되며 기원후 2세기~3세기에 해당한다.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형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된 예가 없지만 탐라성립기 후기와 탐라시대 후기의 주거형태로 미루어 원형의 수혈주거지가 어느정도 시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탐라성립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취락의 규모가 확대되고 토기조합상에서 직립구연토기,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등이 중심토기로 제작·사용되었으며 계층구조의 불평등화를 상징하는 위신재가 증가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탐라시대 전기는 소규모취락이 급증하며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계층구조의 불평등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배계층의 무덤이 출현하는 단계이다. 제주전역이 광지리식토기로 단일화되며 지식묘의 축조형태에서 우월성이 나타나고 철기의 사용이 증가한다.

제주고고학은 무문토기시대 말기~탐라시대 전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고고학적 특징에 대한 해석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성파로 인해 탐라성립기가 설정되었고 그 공백을 보완할 수 있었으며 차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무문토기시대~탐라시대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연구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康昌和, 1995, 「濟州高內里遺蹟發掘報告」『韓國考古學의 半世紀』, 第19會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 康昌和, 2003, 「耽羅 以前の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강좌 한국고대사』 제10권((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강창화·김경주, 2003, 『濟州 龍潭洞 月星路遺蹟』(濟州大學校博物館).
- 高光敏, 2004, 『濟州島浦口研究』(도서출판 각).
- 고동환, 2003, 「조선후기 商船의 航行條件」『韓國史研究』제123호(韓國史學會).
- 高昌錫 編著, 1995, 『耽羅國史料集』(新亞文化社).
- 국립제주박물관, 2001, 『濟州의 歷史와 文化』(대광문화사).
- 金慶柱, 2000, 「原三國時代 赤褐色土器 研究」(嶺南大學校碩士學位論文).
- 金奎正, 2000, 「湖南地方 青銅器時代의 住居址研究」(木浦大學校碩士論文).
- 김경주, 2001,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研究」『韓國上古史學報』35號.
- 김경주, 2002, 「신제주~외도간 도로건설 구간내 외도동유적 발굴조사」『해양교류의 고고학』, 제2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韓國考古學會).
- 김경주, 2003a, 「濟州市 龍潭洞 龍門路遺蹟 發掘調査」『용담댐수몰지구의 고고학』, 제11회 호남고고학대회 학술대회 발표요지(호남고고학회).
- 김경주, 2003b, 「外都洞遺蹟에 對한 豫報의 考察」『濟州文化財研究』(창간호).
- 김황룡외, 2002, 「제주도 종달리폐총유적 4지구에서 출토된 동물뼈 유물의 비교해부학적 관찰」『大韓獸醫學會誌』第42卷 第3號(大韓獸醫學會).
- 나정욱, 2004, 「제주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세계 거석문화와 고인돌』(財團法人 東北亞支石墓研究所).
- 朴元室, 1993, 「耽羅國의 形成·發展過程 研究」,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탐라사 연구자료집1-역사 1-에 재수록).
- 朴辰一, 2000,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湖西 및 湖南地方을 中心으로」(釜山大學校碩士學位論文).
- 裴德煥, 2000, 「青銅器時代 掘立柱에 대한 一考察 - 西部慶南 松菊里型 住居址 出土遺蹟을 中心으로-」 『제1회 문화재조사연구단 학술세미나 발표요지』(한국문화재보호재단).
- 裴眞晟, 2000,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釜山大學校碩士學位論文).
- 孫峻鎬, 2001, 「韓半島 出土 半月形石刀의 諸分析」(高麗大學校碩士論文).
- 宋滿榮, 1995,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性格 -西南韓地方을 中心으로-」(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申敬淑, 2002, 「湖南地域 粘土帶土器 研究」(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申敬澈, 1989,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의 釜山」『釜山市史』1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申相孝·崔相宗·尹孝男,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III』(國立光州博物館).
- 安在浩, 1998,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涉史 研究-竝行關係를 中心으로」『韓國民族文化』, 第12輯(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尹德香, 2000, 『南陽里遺蹟』(全北大學校博物館).

- 李在賢, 2004, 「영남지역 三角形粘土帶土器의 성격」『新羅文化』第23輯.
- 李宗哲, 2000, 「南韓地域 松菊里型 住居址에 대한 一考察」(全北大學校碩士論文).
-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學研文化社).
- 李清圭외, 1997, 『濟州郭支貝塚-IV · V · VI · VII지구』(濟州大學校博物館).
- 이현석외, 2004, 「수혈건물의 폐기양식(Pattern)」『발굴사레 연구논문집』(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
전문기관협회).
- 林永珍 · 趙簾先 · 徐賢珠, 1998, 『보성 금평유적』(全南大學校博物館).
- 濟州大學校博物館, 1989, 『龍潭洞 古墳』.
- 濟州大學校博物館, 1990, 『上攀里遺蹟』.
-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濟州終達里貝塚』.
- 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濟州市 文化遺蹟分布地圖』.
-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西歸浦市 文化遺蹟分布地圖』.
- 濟州大學校博物館, 2001, 『濟州三陽洞遺蹟-II · III地區』.
-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 三陽洞遺蹟-I · V地區』.
-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2002, 『北濟州郡 文化遺蹟分布地圖』.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9, 『濟州 中文 배릿내 遺蹟』.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1, 『가과도 학술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재연구소, 2002, 『濟州市 外都洞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 濟州文化財研究所, 2003a, 『南濟州郡 文化遺蹟分布地圖』.
- 濟州文化財研究所, 2003b, 「수산 별라리왓유적 간략보고서」.
- 濟州文化財研究所, 2004a, 「龍潭洞 먹돌路 遺蹟 發掘調査 간략보고서」.
- 濟州文化財研究所, 2004c, 『龍潭洞 龍門路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濟州文化財研究所, 2004d, 『加波島 先史遺蹟』.
- 濟州文化財研究所, 2004e, 「한림면전소 건설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2001, 『濟州錦城里遺蹟』(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 조선유적유물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외국문종합출판사).
- 秦榮一, 1994,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濟州島史研究』第3輯(濟州島史研究會).
- 崔夢龍 · 金庚澤, 1990, 「全南地方의 馬韓 · 百濟時代의 住居址 研究」『韓國上古史學報』4號(한국상고
사학회).
- 崔盛洛, 1986, 『靈巖長川里 住居址』, I · II(木浦大學校博物館).
- 崔盛洛, 1993,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全南地方을 中心으로-』(學研文化社).
- 韓相仁, 1981, 「粘土帶土器 文化性格의 一考察」(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韓修英, 2004, 「靑銅鐵 小考」『研究論文集』第4號(湖南文化財研究院).
- 樺田一二(洪性穆외), 2005, 『濟州島의 地理學的 研究-1930年代의 地理 · 人口 · 産業 · 出稼 狀況 等』
(濟州市愚堂圖書館).
-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1993, 『平成5年秋季特別展圖錄-弥生人の見た樂浪文化』.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Dwelling Sites during the Period of *Tamna* Settlement

Kim, Kyoung-ju

Recently, field surveys of dwelling sites ranging from the 3rd century BC to the 3rd century AD in the *Jeju* region have been increasingly undertaken. Based upon such data obtained from the field surveys, this paper is to shed new light on the period of dwelling sites and to look at the developing process of dwelling sites through each period originating from the period of *Tamna* settlement to the early period of *Tamna*.

During the period of *Tamna* settlement, a large scale of dwelling sites like *Songkukri*-style dwelling culture were prevalent. The dwelling sites are located primarily on beach berm and fluvial embayment which are lower than 50 meters above the sea level, within 2 km away from the seashore. The then dwelling sites are confirmed to have gone through changing patterns over the following three phases. During the early period dating from the 3rd century to the 2nd century BC, the *Songkukri*-style dwelling culture was introduced, and larger dwelling sites than the previous period were settled down. As a growing period of the *Songkukri*-style culture, the middle period dates back to the 1st century BC to the 1st century AD. Then, the *Songkukri*-style culture was in the changing course of being modified and vanishing over the late period dating from the 2nd century to the 3rd century AD or so.

During the period of *Tamna* settlement, the scale of dwelling sites was enlarged than the previous period. Depending on manufacturing modes, pottery with an upright mouth, pottery with clay stripes, and *Samyangdong*-style pottery considered as the main pottery were then produced and used. The number of such pottery seen as prestigious effects representing social class discrimination increased. In the early period of *Tamna*, a small scale of dwelling sites increased rapidly. While the ironware tombs of the ruling class were appearing in the process that the gap of social class discrimination was deepening, *Gakjiri*-style pottery became outnumbered in the whole region of *Jeju*.

[Keywords] The Period of *Tamna* Settlement, the Early Period of *Tamna*, *Sangmori*-style Pottery, *Samyangdong*-style Pottery, *Gakjiri*-style Pottery